

사투리의 맛과 개성

Re-written by Stacey Christensen

오래전부터 한국 사람들은 고유의 언어인 한국어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면서 한국어는 지역에 따라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렇게 차이가 생긴 말을 ‘사투리’라고 하는데 사전에서는 이것을 ‘어느 한 지방에서만 쓰는, 표준어가 아닌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투리는 그 지방만이 가진 특징과 문화가 있다.

경상도 사투리에서는 ‘뭐라고 말했어?’를 ‘뭐라 카노?’라고 하는 것 처럼 긴 문장을 줄여서 짧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표준어에는 없는 음의 높고 낮음이 있다.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가 강하게 들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경상도 남자들의 말은 무뚝뚝하다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믿음직스러운 느낌을 주기도 한다. 그래서 한국 영화에서는 강하고 속이 깊은 남자 주인공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전라도 사투리에는 음의 길고 짧음이 있다. 또한 문장의 끝을 길게 늘이는 특징이 있는데 ‘종지잉’ 등의 ‘잉’은 잘 알려진 전라도 사투리의 대표적 특징이다.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면 부드러우면서도 재미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다.

충청도 사투리는 문장의 끝에 있는 ‘요’를 ‘유’라고 길게 발음하는 경향이 있어서 표준어의 ‘그랬어요’를 보통 ‘그랬어유~’라고 말한다. 또한 충청도 사람들은 말하는 속도가 느린 편인데, 충청도 사투리를 듣다 보면 답답하기보다는 오히려 느린 말 속에서 그들만의 편안함과 여유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한국의 사투리는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투리는 그 지방 사람들의 삶이 그대로 담겨 있는 소중한 문화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어휘 glossary

겪다: to experience	늘이다: to extend, to stretch
답답하다: to be frustrated	무뚝뚝하다: to be gruff
문화 유산: cultural heritage	소중하다: to be precious
속이 깊다: to be thoughtful	음: tone
정의하다: to define	종종: often
표준어: standard language	흩어지다: to scatter